

미국 대선과 공화·민주 양당의 동북아 정책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나라이며, 이는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미국이 추진해야 하는 대외정책, 동북아정책에서도 공화·민주 당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냉전 시기 미국은 힘과 파트너십 또는 힘과 다자주의의 균형에 입각한 초당주의적 외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은 대체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 공화당은 미국의 힘은 군사력 보유와 행사, 그리고 미국주도 동맹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힘은 강제보다는 설득에 기반하며, 그 힘은 다자주의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매킨과 오바마 후보의 보좌진 성향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매킨의 외교발언 행적과 최근 발표된 공화당의 대외정책 내용을 보면, 신보수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매킨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외교문제에서 부시 행정부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후보 보좌진은 힐러리 후보 자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클린턴 전 대통령 시기 외교안보인맥에 비해 더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 수행에 반대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현명한 힘”(smart power)과 경제원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최대의 전략적 관심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중국이 보여주는 여러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 민주당계 전문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공화당계 전문가는 대체로 경계하는 경향이 강하다. 양당 전문가 공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여와 헷징(hedging)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당계는 관여를 더 중시하거나 관여와 헷징의 균형을 강조하는 한편, 공화당계는 외교적 헷징의 측면을 중시한다. 일부에서는 군사적 헷징을 적극 중시하는 경향까지 있다.

또한 민주당계는 좀 더 중국 중심적, 협력안보적 동북아시아 정책을 주장한다면, 공화당계는 좀 더 일본 중심적이며 동맹중시, 미국 일방우세 확보 정책을 내세운다. 민주당계는 미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관계 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긴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 및 여타 문제 논의를 위한 미-중-일 삼각 협력체를 구성하는 데 관심을 표한다.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을 보다 심각하게 간주하며 일본의 헌법 개정과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계는 북한 핵 무기 개발 문제를 저지하는 데서 북미협상 및 미중간의 협력을 평가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이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양자 동맹 체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상, 중국과 전통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여러 초국가적 문제의 해결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자적 구조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공화당계는 중국의 주변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관여를 확대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헷징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공화당계는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기타 중국 인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키워주고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을 통해 중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에는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계는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자면, 일본은 헌법 9조를 개정하고 군사비를 늘려서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러면서도 미국에 보조적인 군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동등한’ 일본이라면, 미국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공화당계는 민주주의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어젠다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스스로가 내세우는 아시아의 어젠다가 되게 함으로써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상과 중국 내부의 진화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다.

한국과 관련해서 보자면 세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공화·민주 양당 모두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역설한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상대적 힘이 강화되었고,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예측을 반영한다. 둘째, 공화·민주 어느 쪽의 동북아 구상이 추진되는가에 따라 한국의 대외적 입지와 위상,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등은 상당히 다른 거시 구조 속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칠 때 그것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화·민주 양당은 모두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양당의 구상에는 공히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거나 애매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 민주당은 중국을 중시하며, 미-중-일 삼각관계 수립에 관심이 많고, 북한 핵 문제는 미중협조를 통해 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계에게는 일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여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암묵적 편파성이 등장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및 기타 아시아 민주국가의 관계강화를 거론하는데서, 유독 한국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의 대외 및 대북정책에 대한 주요한 환경 변화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양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승리와 공화당 승리라는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서, 최적의 포지션을 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공화·민주 양진영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당적 외교가 펼쳐져야 할 것이다.

